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교회세운날 1908.5.1

선의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창조절 4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홍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담임목사

- ▲ 경배의 찬송 17. 사랑의 하나님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들녘의 곡식이 가을별을 맞으며 아름답게 여물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운을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여 영혼이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못 생명이 그러하듯 우리도 다른 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 주는 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광포한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중독 때문에 연이어 범죄를 저질렀다는 보도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릇된 욕망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혐오와 증오에 중독되어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일을 반복하는 이 사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고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사 60:20 인도자
- ▲ 교 독 문 82. 빌립보서 2장 다 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 2부 대표기도 박범희 장로
- 2부 응 답 송 찬양대
- 2부 찬 양 490.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다 함께
- ▲ 성경봉독 행 18:5-11 1부: 인도자/2부: 김지현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 찬 양 사랑이 없으면 참빛찬양대
- 말 씀 목소리를 내라 김기석 목사
- 거듭기도 다 함께
- 특 송 내가 깊은 곳에서 하늘빛중창단
-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다 함께
- ▲ 봉헌기도 김기석 목사
- 공동체 소식 김기석 목사
-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
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
소리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생명의 소리
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바른 목소리를 듣고 바른 목소리를 내
며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다 함 께 : 아멘. 주님, 그릇된 소리가 넘쳐 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
이 담긴 바른 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대한 두
려움을 떨쳐 버리고 주님께서 들려주신 바른 소리를 이 세상에
전하며 살겠습니다. 바른 소리를 들은 자의 책임을 다하며 살겠
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 축 복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 이재훈 목사

낮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저녁성경공부 / 강의 : 이재훈 목사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화가 날 때엔 어떻게 하나? 심리학자들은 화가 날 때 꼭 참고 삼키는 것이 능사가 아닐뿐더러 좋지 않다고 말한다. 그래서 화를 내라고 권하기도 한다. 음식이 었혔으면 토하는 게 상책이듯이, 좋지 못한 감정도 토해버리라는 얘기겠다. 일리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가 날 때마다 화를 내다보면 화내는 데 오히려 익숙해져서 툭하면 화를 내는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 인가?

꼭 참는 것도 능사는 아니지만 화가 날 때마다 화를 내는 것도 바람직한 해결책은 아니다. 게다가 어느 종교의 스승도 화를 내라고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내가 화를 내는 건 상한 음식을 토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 해도, 그 때문에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불쾌한 감정을 느낀다면 그것 또한 못할 짓 아닌가? 긴말 할 것 없이, 화를 자주 내는 건 보기에다 좋지 않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도 화를 내는 것보다는 안 내는 게 낫다. 그런 줄 알지만, 화가 난다. 어쩔 것인가?

...

분노, 낙담, 미움, 질투 따위 이른바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전투적이었던가?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 자리를 사랑, 평화, 희망 따위의 온갖 긍정적인 감정으로만 가득 채우려고만 했던가? 그럴수록 상대방을 박멸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는 진실에는 어찌면 그토록 눈이 멀었던가?

사탄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들짐승과 천사를 함께 만나야 했던 예수, 밀밭의 가라지를 그대로 두고 가라지와 함께 밀을 재배하라고 가르친 예수, 그를

스승으로 모신다 하면서 어쩌면 그토록 자기분열의 과정을 사회화하는 데 힘써 왔던 것일까?

왜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밥도 먹어야 하고 똥도 싸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고서 밥은 애착하고 똥은 타기唾棄¹⁾하는 왜곡된 삶의 태도를 그토록 완강히 고집했던가? 똥을 싸지 않으면 죽고 말듯이, 사람이 절망하고 화나고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으면 죽고 만다는 걸 어쩌면 그렇게 몰랐던가?

지난 한 달쯤(?) 우울한 기분에 휩싸여 살았다. 날마다 우울해서 일하고 싶지도 않았고 일을 해도 재미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나는 우울할 수 있어서 인생이 고맙다. 우울하다는 건 내가 살아 있다는 증거요, 턱낱한의 말대로 이것을 잘 품어 안으면 어떤 기막힌 거름으로 바뀌어 무슨 꽃으로 또는 열매로 피어날지 누가 알겠는가?

한 스승에게 제자가 물었다.

“선생님,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에는 어떠하십니까?”

“때로 우울했다.”

“그러면,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는 어떠하십니까?”

“때로 우울하다.”

하느님이 지으신 세상이다! 사람이 감히 무엇을 분별하여 이것은 버리고 저것은 취한단 말인가? 모든 것이 합하여 절대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란 말이 무서운 말이다. 그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게 없다. 분노도, 우울도, 절망도 ‘그 모든 것’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이현주, 「그러므로 저는 당신입니다」(함께읽는책) 중에서

1) 더럽게 생각해 버리다

꽃잎만 쓸었겠는가

이옥근

고궁 뒤뜰에
대빛자루 하나
실핏줄만 남은 몸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다

고운 꽃잎만 쓸었겠는가

형클어진 슬픈 상처
제 살 당도록 쓸고 쓸어
저 정갈한 풍경
만들어 놓았을 거다

헌금 영수기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곽수정 권혁순 박혜경b김도윤 김성아 김애순 김연정 김영락 김용규 송 명 김용진
박효선 김일재 김중수 이순정 김중현 성귀옥 김지훈 김충실 조아라 김현주 김희진
박홍재 문희영 박상옥 임서영 박숙미 박지혜 박호승 송남필 송형운 하미림 안지민
우경환 윤영주 윤정득 은종인 이나라 이미휘 이부곤 이순이 이용석 이용석 이은경
이정은a이주경 안상숙 이치림 강상연 임 영 정경례 임찬양 장동훈 정은선 장승희
정다운 홍예선 정이든 조경환 조순덕 최윤화 최철수 광권희 하상애 한선희 무명

감사헌금

강민지 김금순 김기석 김희우 김영란 강대정 김영호 김은지 김인석 이선화 김일랑
이은옥 김일재 김정완 서담이 김정화 김태정 나영란 박재영 이현정 방문성 박혜경
방종미 변종복 신기호 심영란 심재남 김성희 유성애 우수진 이상도 이순이 이재삼
전정현 임설희 정현모 조영순 조치형 채일석 최병민 서지연 최하송 함정희 허명선
황현성 이오복 무명5

생일감사헌금

박석희 최승주

녹색꿈헌금

구혜린 김수영 김용진 박효선 오은영 이행진 이현죽 최가운

예배 및 모임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아부예배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예배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예배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예배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1청년부예배	13:30	유치부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일·월 쉼)
2청년부예배	13:30	청년회실			

교회소식

1. 설문조사 : 사회봉사부에서 전교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합니다. 작성하신 후, 수거함에 넣어 주십시오.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2019년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수거함(1층 로비)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3. 바자회 물품 받습니다 : 여선교회에서 은퇴 여교역자 안식관 건축 후원을 위한 바자회를 10월 6일에 엽니다. 바자회를 위한 물품(사용 가능하고 깨끗한 것)을 기증 받습니다. 기증하실 분은 물품을 다음 주일까지 교회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4. 판매 : 영월 동강에서 생산한 포도, 산머루, 포도즙을 판매합니다.
5. 신앙실천 :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계절을 차분히 정리하고, 잘 안 입게 된 옷은 정리해서 기증하면 좋겠습니다.

	설교본문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다음주	미정	1부 김재홍	공동기도	인도자	이범석
		2부 김재홍	장원호	조두희	이재훈
9월	1부 영접위원	김정우	헌금위원	이부용	
	2부 영접위원	곽권희 임주빈	한성건 최현옥	최승주 허희라	
	2부 헌금위원	안종일 박미영			
식당봉사	오늘	최현옥 김신실 안상숙 공재량	허희라 남윤경	임주빈 이주경	
	다음주	이오복 강금연 박윤숙 김선영	안정숙 허신열	조장형 황현성	
설거지봉사	4여성교회 (오늘)	5여성교회 (다음주)	커피봉사	4여성교회	

※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교회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